

숨은그림찾기 < 75 >



찾아보세요 고추, 양주잔, 몽당연필, 제비, 셔플록, 열대어, 상어, 바늘, 다리미

인생을 찾아 떠나자

20세를 갓 넘긴 아들이 부모에게 말했다. "아버지, 어머니, 이제 제 인생을 찾아 떠나겠습니다."
당황한 아버지가 물었다. "너의 그 인생이란게 대체 뭐냐?"
"전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고요. 돈도 많이 벌고 싶고, 발길 닿는 대로 떠나고 싶고, 멋진 여자들도 만나고 싶어요. 질 따지 마세요."
아들이 현관문을 가려고 하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가갔다.
"왜 그러세요. 막지 말라고 했잖아요."
"누가 널 막는다고 그러냐. 어서 앞장서라. 같이 떠나자"



지나주 정답

갈매기, 셔플록, 열대어, 송사리, 바늘, 알파벳 A자, 펜촉, 못, 다리미

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.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, 상품권(2만원)을 드립니다.
▶보내실곳: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-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
▶당첨자: 윤정문 <영암군 삼호읍> 김영수 <광주시 북구 동림동>

아하! 오늘이 바로 그날

31일, '2002 한일월드컵 축구대회' 개막식

2002년 5월 31일, '2002 한일월드컵 축구대회'가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식을 갖고, 한 달간의 열정에 돌입했다.
공동개최국인 한국과 일본, 전년도 우승팀 프랑스와 대륙별 예선을 거친 29개국 등 모두 32개국이 참가하는 꿈의 축구 대회가 시작된다.
이 날부터 한 달간 온 국민은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'비 더 레드(Be The Reds!)'가 새긴 붉은 티셔츠를 입고 '대~한민국!' '오! 필승 코리아'를 외쳐댔다. 폴란드를 2대 0으로 꺾고 월드컵 사상 첫 승의 신화를 창조할 때, 거함 포르투갈을 물리쳐 16강 진출의 숙원을 풀었을 때, 이탈리아에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한 뒤 광주에서 스페인을 누르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4강 신화까지 이룩했을 때 전 국민은 말 그대로 하나가 됐다. 안정환의 이탈리아전 골든 골을 잊을 수 없는 명장면으로 손꼽히고 있다.
광주를 비롯한 전국은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다. 4강 신화가 이뤄진 뒤 광주시 동구 금남로 구 광주은행 사거리까지 500m 일대는 역사상

가장 많은 인파인 20만명의 시민들이 몰렸고 서울 시청 앞은 붉은 응원 물결로 뒤덮였다. 시민들은 아리랑 가락 등에 어깨춤을 쳤고 누구라 할 것 없이 삼삼오오 어깨 동무를 해보이며 하나되는 세상을 이뤄냈다.
특히 광주·전남 지역민들에게는 광주경기에서 월드컵 4강 신화가 이룩, 한국 축구사의 새로운 시작지가 됐다는 점에서, 5·18 민주화운동의 성지 광주 전남도청 앞 광장이 축제의 자리로 다시 태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.
월드컵이 끝난 뒤에는 그 날을 기념하는 '4강로'와 히딩크 감독의 이름을 딴 호텔도 생겼다. 월드컵 때 보여준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 곳저 곳에서 나왔다.
그로부터 5년 뒤인 2007년 5월, 갈수록 살림살이가 힘들어지고 팍팍해진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. 직장인 어깨는 움츠러들고 자영업자는 못 살겠다며 아우성이다. 5년 전 그 에너지가 필요하다.
/김지용기자 dok2000@



한국과 스페인의 4강전이 열린 지난 2002년 6월 2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도청 앞 광장. 20만명의 붉은 응원 물결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를 뒤덮었다. <광주일보 자료사진>

뉴스퀴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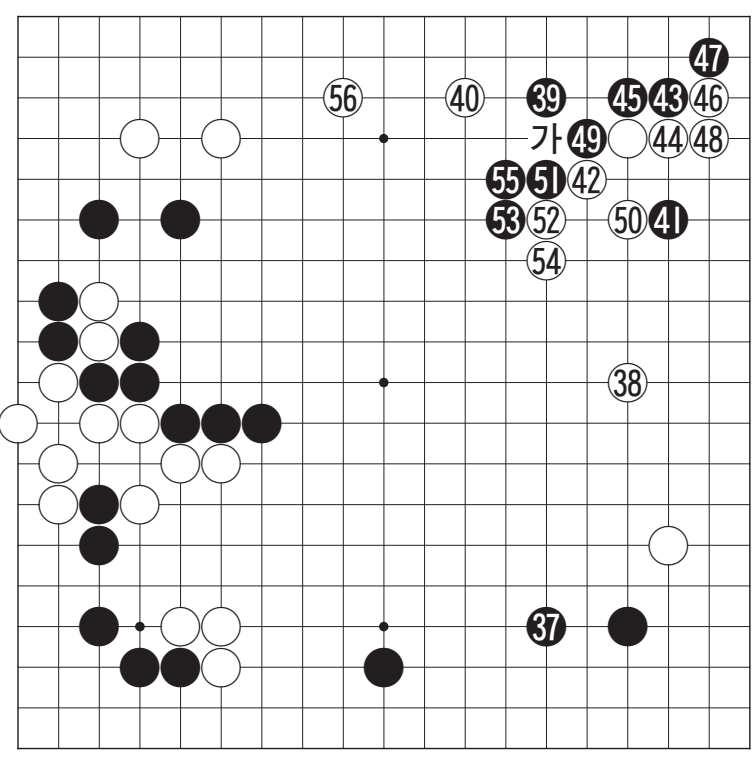
66. 최고 수준의 대항(對抗)·대공(對空)·대잠(對潛) 능력을 갖춘 '꿈의 구축함'으로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(KDX-III·7천600t급) 1번 함의 진수식이 최근 열렸습니다.
이 구축함이 진수됨에 따라 우리 나라는 미국·일본·스페인·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 이지스 구축함 보유국이 됐습니다.
시험운행을 거쳐 2008년 해군에 실전 배치될 이지스 구축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
① 세종대왕함 ② 서해함
③ 남해함 ④ 제주도함

참여 방법
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, 1위 상성전자 고급 전자책 1대,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. (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)
보내실 곳
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-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-711

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30일(음 4월 14일 甲子)

- 36년생 持續的인 안정이 있고 재복으로 기도안정을 찾는다. 48년생 협조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일을 추진해준다. 60년생 직장을 포효로 잡은 격이 나 큰 힘이 있을 수다. 72년생 의외의 돈은 쉽게 사라진다. 84년생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기기 준비하고 있다. 행운의 숫자 : 14, 16
37년생 精神의 不便이 발생할 수 있고 부부關係에 언발할 수 있다. 49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新事가 발생한다. 61년생 하루가 평안하니 周圍를 둘러보라. 73년생 子女가 떨어져 살아야 할 痛恨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. 85년생 고개를 숙여서 땅을 한번 살펴보라. 행운의 숫자 : 12, 38
38년생 협조자가 있으나 結果는 반반이다. 50년생 먼 旅行으로 信賴를 잃었으니 주변인들에게 믿음을 쌓아라. 62년생 過熱만 없으면 결과는 좋으리라. 74년생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오니 準備하고 기다려라. 행운의 숫자 : 03, 29
39년생 愛이 나를 괴롭혀나 큰일은 아니다. 51년생 外부의 일이 家庭에까지 騷亂을 일으키니 細心하게 살펴보라. 63년생 처음에는 苦痛스러우나 나중은 便宜하리라. 75년생 執心한 進取로 功成을 볼 것이다. 행운의 숫자 : 07, 34
40년생 세 번 생각하고 말하면 미움은 없으리라. 52년생 옛 감정은 빨리 털어버리면 새로운 영이 솟아난다. 64년생 말다툼이 凶事로 飛火 될 수도 있으니 빨리 감정을 정리하라. 76년생 兇人에게 兪기를 복돋우라. 행운의 숫자 : 20, 40
41년생 초 심 사람조심의 弊를 갖으라. 53년생 미운 사람과 좋은 사람이 생긴다. 65년생 아늑한 보금자리이나 不眠한 사람이 같이 있다. 77년생 가정과 직장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慎重하라. 행운의 숫자 : 09, 26
42년생 가까운 인사들로부터 欺騙을 당하거나 金錢과 利害가 있다. 54년생 利害한 문서만 조심하면 대수는 없다. 66년생 만나서 사람마다 오래가지 못하니 選擇을 잘하라. 78년생 世上에 不祥되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. 행운의 숫자 : 05, 31
43년생 어려운 보여도 쉽게 解決한다. 55년생 手下人과의 兪언은 절대 금하다. 67년생 肝臟과 脾臟의 病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보라. 79년생 새 문서를 친구가 가져오나 仔細하게 檢査해야 하리라. 행운의 숫자 : 08, 25
44년생 兪해가 모두 내 것은 아니다. 56년생 情은 있으나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울 뿐이로다. 68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內實 있게 결정한다. 80년생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곱과 속이 꼭 짝과 같이다. 행운의 숫자 : 17, 37
45년생 家運安定에 힘을 쓰라. 57년생 防風林은 남자가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. 69년생 異性 보다 親屬을 만나서 兪를 한잔 하라. 81년생 남을 높이면 自身도 올라가니 자신을 낮추라. 행운의 숫자 : 15, 45
46년생 집안은 평안하고 집 밖은 시끄럽다. 58년생 夫婦 사이에 이해 있는 대화와 자녀를 살펴보라. 70년생 이웃을 살펴보라. 82년생 개인의 절약은 국가 경제로 통하니 가계부터 잘 살펴라. 행운의 숫자 : 20, 45
47년생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 分數를 지키라. 59년생 모든 일에 불만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耐性을 길러라. 71년생 進取의 變동으로 걱정이 생길 수도 있다. 83년생 善한 일은 잘 이루어지리라. 행운의 숫자 : 21, 16

www.cafe.daum.net/sajoo114 ☎11-632-6121
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용터이야!! DermaPlast
더마플라스트 밴드
제품구입문의: (주)호원약품 062-383-5883



제16회 광주시 전남 직장바둑대회
진출에 급급한 악수 3보(37~56)
白 이한재 4단 (조선대)
黑 이민재 4단 (광주시청 A)
흑 41은 우변을 의식한 일종의 변칙수. 이때 백은 '가'로 눌러 가면 보통 이며 정석이다.
그러나 이한재 4단은 여기에서 백 42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다.
흑도 이제는 43으로 귀에 쳐들어가는 정도인데 46으로 쫓아오는 수가 또 강수로 우변에 집착할 수였다.

바둑소식
김은선, 지지옥선배 4연승
김은선 3단이 지난 28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기 지지옥선배 15국에서 서봉수 9단을 186수 만에 백불계로 제압하고 4연승을 기록했다.
김 3단은 김수장 9단, 오규철 9단, 김중준 5단을 연파한데 이어 '아전사령관' 서봉수 9단까지 격침시키면서 4연승을 기록, 연승상금 300만원의 마지막 주자인 조현현 9단을 꺾을 경우 우승을 차지한다.
이 대회는 제한시간 10분 30초 초읽기 3회로 진행된다. 우승상금은 5천500만원, 연승상금은 3연승 시 200만원, 1승 추가 시 100만원이다.
/윤영기기자 penfoot@kwangju.co.kr

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:
1. English: 'I want to speak to Mr. Jason Park'
2. Japanese: 'びっくりするものが多いですね'
3. Chinese: '我觉得有点儿贵'
4. Korean: '他山之石 (타산지석)'
Each column includes a sample dialogue, a list of questions, and a list of answers.